

믿음에 실패한 자와 믿음에 성공한 자.

본문: 요한복음 6:30-40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30-36절과 37-40절이다. 첫 부분(30-36절)에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들은 믿음에 실패한 자들이다. 두 번째 부분(37-40절)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 들인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들은 믿음에 성공한 자들이다.

I. 믿음에 실패한 자들

우리는 예수님이 떡여주신 빵으로 배가 불렀지만, 그날이 지나자 그들은 다시 배가 고파다. 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주신 것을 기억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기적의 빵을 하루만 먹은 것이 아니었다. 40년 동안 매일 먹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표적을 행해 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부인하시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을 제공하신다.

32절을 읽어보자. 첫 번째 부인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다. “하늘에서 빵을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이시다.”

두 번째 부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빵은 기적의 중심 요점이 아니다. 그 기적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훨씬 깊은 뜻이 있다. 그 깊은 뜻은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떡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신 것은 “참된 빵은 하나님의 빵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빵이다.” 그 빵은 여기 소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명백하게 세상에 생명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절대 배고프지 않고, 그를 믿는 자는 절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5,000명을 명하신 목적은 그들이 예수님을 참다운 생명의 떡으로 먹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계속 육신의 떡만 달라고 주장함으로 참된 생명의 떡을 먹는 데 실패한 자들이다.

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믿음에 실패한 자들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믿지 않고 세상의 유익만을 구하게 될 때 믿음에 실패한 자가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세상의 명예와 부와 성공을 가져올 때 자기들은 예수를 잘 믿는 자라고 치부하며 교만에 빠진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보다 혼자만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고 낭비하는데 빠지고 만다. 반면에 명예와 부와 권세 등, 세상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욥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사단의 시기를 받아 자식들을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밭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다. 견딜 수 없는 환란 가운데 그에게 그의 처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욥기 2:9) 하였다. 가까운 친구들은 그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졌다. 욥기 23: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처럼 욥의 신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은 처음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많은 더 큰 복을 주셨다. 우리는 세상 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병들고 재산을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행한 일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절대로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기회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에 실패자가 되지 말고 믿음에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한다.

II. 믿음에 성공한 자들.

37~40절에서 믿음에 성공한 자들의 이유가 나온다.

그들이 믿음에 성공한 이유는 결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5가지 주장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하나님은 그가 선택하신 자를 예수님께 주셨다.

37절, 39절을 읽어보라.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다.

2.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왔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하지 않으신다. 아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자들이 아들에게 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일하신다. 아버지는 그들이 아들에게 올 수 있도록 확실히 보증해 주신다.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데려오셨기 때문이다.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의 눈을 열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3. 예수님께 온 사람은 능력 있게, 영원히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다.

37절에서 아들에게 주시고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고, 그들을 보존하신 것은 아들의 주권 사역이다.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다. 39절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아들에게 간다. 아들은 우리를 잃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다. 아들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40절에서 말 한대로 “영생”이다.

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다. 그 생명은 결코 잃게 될 수 없다.

4.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39, 40절을 읽어보라.

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5. 모든 하나님의 주권 사역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기초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에게 주심, 우리를 아들에게 오게 하심, 우리를 보존하심, 우리를 부활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주권 사역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기본 진리이다. 이 주권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38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믿음에 실패한 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믿음에 실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믿음에 성공자가 된다. 이미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산자라 할지라도 자기 길을 선택한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더 믿음이 자라도록 노력하여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다. 문제는 이 엄청난 은혜로 믿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은혜를 헛되게 하여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딤후 6:12)을 하라고 권면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고 더 큰 엄청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하는 것처럼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큰 부흥을 가져올 수 있고 내가 머무는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루듯이 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 나라와 온세 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불꽃이 타오르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